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만 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주거공간의 상징성에 관한
회화적 표현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류 경 희

주거공간의 상징성에 관한
회화적 표현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이 만 수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류 경 희

인 준 서

류경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현재 한국의 수도 서울에 평범한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 집(아파트)을 갖고 있다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자의 작품 내용에 대한 시작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본인의 생활에서 꼭 있어야만 하는 집을 향한 욕망으로부터 시작된다.

‘콘크리트 숲’이라고 생각되는 아파트이지만 아침에 일어나 길을 걷다가 문득 눈을 들어 앞을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의 수보다도 더 많아 보이는 아파트 숲이 산의 능선처럼 아름답게 겹겹이 실루엣을 이룬다. 적어도 본인에게는 ‘콘크리트 숲’이 아닌 한반도에서 항상 볼 수 있는 산의 능선을 보듯 자연스러운 일상의 풍경들이다. 이렇듯 본 연구자의 작업에 대한 일상에서 보는 아파트와 그것을 바라보는 본 연구자의 심상의 풍경을 표현한다.

본 연구자의 작업에서 자연스럽게 아파트의 풍경이 주제가 되었다. 작업에서 아파트를 주제로 정한 이유는 본인은 그동안 계속 풍경을 그려왔고 주로 전원 풍경을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풍경에서의 장소성에 대해 고민하였다. 장소성이 인간의 체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체화 된 환경이며 이런 과정에서 같은 장소에 모인 여러 사람과 그들로부터 형성된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의미에서 주제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파트로 정했다.

작품 안에서 표현되는 스토리텔링은 자전적이다. 여기서 자전적이라는 표현은 본 연구자의 지난 시간의 체험으로부터 생성되었으며 그 체험을 바탕으로 확장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갖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빌딩 숲이 즐비한 광화문이나 강남 그리고 여의도로 출퇴근을 반복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빌딩 숲으로 출퇴근하기 위

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개개인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꿈을 억누르고, 갇힌 도시의 부속품처럼 살고 있는가?

본인의 작품에서도 시간에 대한 이야기와 ‘유보된 자신의 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인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작품의 제작 과정에서 반복되는 붓질과 가로선으로 표현된다. 본 연구자는 수많은 선들의 반복을 통해서 작품을 완성한다. 화면을 메우는 과정에서 수없이 반복하는 작가 본인의 시간을 상상할 수 있다.

본인은 이 선들을 반복하는 순간만큼은 고단한 삶과 매 순간 뉴스나 SNS 등을 통해서 들려오는 슬프고 가슴 아픈 사건들로 얼룩진 현실을 잇는 무아의 시간이 된다. 장지 위에 켜켜이 반복해 온 선들이 축적한 시간은 본 연구자에게는 고단한 삶을 잇는 시간이며 이는 역설적으로 욕망의 구현체인 아파트에 저당 잡힌 시간일 수도 있다.

본 논문은 본인의 작품에 대한 상징 및 장소성에 관한 고찰과 함께 본인의 유보된 꿈에 대한 내용을 논한다. 한 개인이 살아 온 과정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그러므로 돈은 노동이며, 그 결과 시간은 노동이라는 이론의 성립을 작품으로 제작한다. 기존의 작품에서는 본 연구자 개인의 잃어버린 꿈과 맞바꾼 욕망의 구현체인 아파트에 대한 다분히 개인적인 내용이 기본이 되었던 작품이었다면, 최근의 작품에서는 ‘시간=노동력제공=재화’라는 내용이 포함되며, 이것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고 해석한 본인의 ‘시간의 등가물’인 아파트를 표현한 작품에 관한 분석 연구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현대사회에서의 주거공간에 대한 고찰	3
1) 현대사회에서의 아파트의 장소성	3
2) 일상 속의 풍경	6
III. 주관적 시선으로 해석한 주거공간	8
1) 욕망의 구현체인 아파트	8
2) 시간과 잊힌 일상들	10
IV. 작품 분석	13
1) 반복적인 붓질의 의미	13
2) 가로선과 거울의 상징적 표현	15
V. 결론	37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류경희, 〈도시의 시간Ⅱ〉, 162cm×130cm, 거울에 혼합재료, 2017	18
【작품 2】 류경희, 〈흐름〉, 116cm×91cm, 호분지에 분채, 2016	19
【작품 3】 류경희, 〈도시의 시간 I〉, 130cm×161cm, 호분지에 분채. 은분, 2016	21
【작품 4】 류경희, 〈흐름Ⅱ〉, 116cm×96cm, 호분지에 분채, 2016	23
【작품 5】 류경희 〈도시의 시간Ⅲ〉, 72cm×53cm, 거울에 분채, 2017	24
【작품 6】 류경희, 〈흐르다〉, 116cm×91cm, 호분지에 혼합재료, 2016	26
【작품 7】 류경희 〈지금...바라보다〉, 116.8cm×72cm, 삼합지. 분채. 종이끈, 2016	28
【작품 8】 류경희 〈흐름...얻는 것과 지워진 일상〉, 112cm×162.2cm, 삼합지에 분채, 2016	29
【작품 9】 류경희, 〈상상을 뜨개질하다〉, 53cm ×45cm, 호분지에 분채, 2016	31
【작품 10】 류경희, 〈시간...현재...〉, 40호, 거울에 혼합재료, 2017	32
【작품 11】 류경희, 〈꿈꾸는 어떤 것〉, 100cm× 80cm, 호분지에 분채, 2016	33
【작품 12】 류경희, 〈555,840seconds〉, 92cm×145.5cm, 삼합지에 분채, 2017	35

I. 서 론

본 논문은 인간이 일정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요소인 의(衣)·식(食)·주(住) 중에서 주(住)에 관한 내용이다. 본 논고에서 집(住)이란 현재를 살아가는 2000년대의 한국 그리고 서울에서 거주하는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공간이 중심이 되며, 본 연구자에게서의 집이란 아파트를 뜻한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거공간이기도 한 욕망의 구현체인 아파트와 시간의 등가물인 아파트에 대한 장소성, 시간, 노동력으로 얻는 재화, 일상의 의미, 재화를 얻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과 자아에 대한 성찰 등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을 다니며 자기 소유의 집, 즉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기도 하며 아파트가 중산층이나 상류층의 상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욕망의 구현’으로써의 아파트에 관한 내용과 ‘유보된 꿈’ 또는 ‘잃어버린 시간과 일상’에 대한 본 연구자의 작품에서 표현되는 내용연구와 제작과정을 살펴본다.

본 논문의 진행은 본문Ⅱ에서는 현대사회에서의 주거공간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본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본인의 작업은 도심에서도 다양한 주거형태의 무수한 빌딩들 중에서도 삶의 주거지로 선호되며 심지어는 대한민국에서는 재산을 축적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기도 하는 아파트를 살피면서 본인의 일상에서 바라보는 아파트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이 실린 작품이 시작되어가는 과정을 논한다.

본문Ⅲ에서는 본 연구자의 시선으로 해석하게 된 아파트를 욕망과 재화에 관한 ‘시간의 등가물’로써의 아파트에 대한 연구와 작품제작에 있어서 거울

을 사용함으로써 표현하고자한 본인의 내면에 대한 자아 성찰 및 일루전이 포함된 작품에 관한 분석 연구를 한다.

본문Ⅳ에서는 본인의 작품을 분석하며, 작품 제작과정에서 본 연구자의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가는 붓 터치와 반복적인 행위에 대한 자아 치유의 측면과 함께 화면을 가로지르는 긴 가로 선에 관한 표현 동기와 기법에서 일루전적인 측면에서의 효과 및 각 작품의 표현방식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작품에 대한 표현 확장을 위한 방향을 논한다.

II. 현대사회에서의 주거공간에 대한 고찰

1) 현대사회에서의 아파트의 장소성

집이란 사람이 일정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衣). 식(食). 주(住) 중에서 주(住)에 해당한다. 이는 꼭 필요하다는 의미를 말한다.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집이란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속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지은 건물을 뜻하는데 현대사회에서 아파트가 가장 선호되는 주거형태가 되었다. 특히 아파트 형태의 주거지는 이미 고대 로마의 ‘인술라(Insula)’¹⁾에서부터 여러 층의 형태의 주택에서도 나타나는 전 세계적인 주거형태이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아파트는 프랑스의 건축가인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0.6.~1965.8.27.)²⁾ 이다. 그는 수직적 건축의 집단 주거단지 건설을 주장하였다. 그가 구상한 도시 계획안은 오늘의 우리가 접하는 풍경과 별반 다르지 않다. 지금 대한민국의 아파트의 풍경은 그가 구상한 ‘빛나는 도시 계획안’인 닭장 같은 주거공간을 탄생시켰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는 비개성적인 공간의 형태이지만 작품 속에서는 본 연구자의 감정과 느낌을 함께 표현하고자 했다. 본 연구자의 작품을 이해하려면 아파트의 장소성³⁾에 대하여 언급하여야 하는데 “장소란 의미가 부여된 공간을 말한다.

1) 인술라(Insula) : 고대 로마에서 도시의 인구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5층의 현대의 아파트형태의 임대주택을 만들었다. 이를 지칭하여 섬(Insula)이라고 하였다.

2) 르 코르뷔지에 (LE CORBUSIER .1887.10.6.~1965.8.27.)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건축가. 그는 많은 사람들이 더 효율적인 공간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집으로 바뀐 건축 개념의 선두에 있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인간을 위한’ 집을 건축했다는 점이다.

3) 장소성은 장소가 지니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인간의 체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체화 된 환경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지식백과.네이버)

의미가 부여된 공간에 대한 인간의 체험에서 얻어지는 장소성은 장소의 정체성을 가지는 어떤 정신적 이미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⁴⁾ 장소성을 이루는 것은 자연환경이나 인공적인 환경에서 나오는 특성, 그리고 그곳에 집합된 사람들과 그들로부터 형성된 문화적 정체성을 들 수 있다.

아파트의 장소성 또한 서민 아파트에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아파트의 초기 역사와 함께 부의 상징이 된 현재의 고층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형성되었던 문화적, 정서적 정체성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자의 경우에서도 한국인의 아파트를 바라보는 장소에 대한 문화적, 정서적 공감대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인의 작품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서울 안에서 공존하는 아파트를 표현한다.

작품 속의 아파트는 그동안 본인이 직접 여행을 하면서 흥미롭게 관찰하게 되었던, 지금은 사라진 홍콩의 악명 높은 구룡성채⁵⁾나 익청빌딩⁶⁾으로 대표되는 오래되고 특이한 형태의 아파트나, 뉴욕의 거대한 빌딩 숲과 호화 아파트가 아니다. 아르헨티나의 특유의 스페인식의 아파트 건물들도 아니다. 중동에서 특히 유명한 예멘의 시밤⁷⁾의 중세에 흙으로 만들어진 가장 높은 건물로 기록된 아파트이거나, 이렇듯 본인이 늘 볼 수 있고 생활하는 장소가 아닌, 더군다나 위의 예시처럼 사람들의 이슈가 될 정도의 아름답거나 기괴하거나 특별한 장소의 건물이 아니다.

4) 김창모. 장소성 해석을 중심으로한 동승동 주상복합 계획안.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3.

5) 구룡성채(Kowloon Walled City) : 홍콩의 구룡반도에 있던 슬럼가. 마구잡이로 지어진 건물이 숲이 특징이며 도시계획이나 설계도 없이 외부로 자꾸 확장될 수 없는 공간적 한계에서도 인구가 계속 늘어난 상태로 고층건물을 쌓아 올리면서 생겨난 특유의 괴기스러운 분위기를 갖게 되었다. 1994년 철거 됨.

6) 익청빌딩 (Yick Cheong Building) : 홍콩섬 퀴리베이에 위치한 196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이며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는 일상의 주거공간이다.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이 아파트는 도시 명소로 사진촬영지로 유명해지면서 관광명소가 되었다.

7) 시밤(Shibam) : 예멘의 고대 성곽 도시인 시밤은 진흙 벽돌로 지은 7층 높이의 집들이 늘어서 있다. ‘사막의 맨해튼’이라고 불리 운다. 시밤은 하드라마우트의 문화적 정체성과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바로 장소성 때문이다. 아파트라는 주제가 아
니어도 산수화를 그린다면 한국의 산수를 그리고 싶듯 한국의 아파트를 그리
고 싶었다. 바로 본인이 나고 자라고 살아온 동네에서의 아파트는 항상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그곳에서 함께 한 여러 추억과 공동체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들에 따른 본인의 정서적 내용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주거공간에 관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아파트먼트
(APARTMENT)를 작업하는 리르크리트 티라바니자(Rirkrit Tiravanija)⁸⁾는 한시
적으로 같은 공간을 공유하게 된 인간들의 예측할 수 없는 조합에 대한 설치
연작을 발표한다.

주거공간에 대한 해석을 하는 측면의 작업을 하는 서도호⁹⁾의 〈집속의 집〉
에서 집은 중첩의 개념이며, 단일한 시간과 공간 속에 포개어 넣는다. 한국의
아파트를 주제로 작업을 하는 정재호¹⁰⁾의 작품 속 아파트는 추억이 깃들고 공
동체의 문화가 형성된 오래되어 사라질 위기에 있는 아파트를 기록 한다는 의
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작가들의 주거공간에 대한 해석을 작품으로 표
현하는데 있어서 내용과 방법이 여러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의 작품에 표현된 아파트는 기법 및 내용에서 장소성을 포함하며
욕망의 구현체인 아파트와 그것을 얻기 위해 잃어버린 자신의 지난 시간을 뒤
돌아보는 작업이다.

8) Rirkrit Tiravanija.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고 20대부터 토론토, 뉴욕등지에서 미술을 배웠다.
그의 〈아파트먼트〉로 식상해진 레디메이드라는 개념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9) 서도호 (1962년생. 설치미술가) 대표작으로 잉글랜드 리버풀의 두 건물사이에 한옥을 아슬하
게 배치해 놓은 'Bridging Home'이 유명하다.

10) 정재호 (1971년생. 한국화가). 위의 작품 내용은 2007년 관훈갤러리에 전시된 작품을 중심
으로 살펴본다. 2017년의 신작은 '경이로운 대상'으로 홍콩의 아파트를 회화적 측면에 방점
을 두고 표현하였다.

2) 일상 속의 풍경

앞에서 아파트의 장소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처럼 작가 본인의 정서 그리고 성장하면서 겪게 된 아파트에 대한 감정은 작품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본인에게 있어서 아파트란 일차적으로 부러움의 대상이며 부의 상징으로써의 욕망의 대상이기도 했다. 더더욱 본인 소유의 아파트란 손에 좀처럼 잡히지 않는 뿌연 안개 너머의 신기루 같은 존재이기도 했다.

현대사회에서 자신 소유의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면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젊었던 당시의 본인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육아 전쟁, 가사전쟁, 출근 전쟁을 하며 살았다. 말 그대로 전쟁터같이 삶을 살아내었다. 세월이 어느덧 흐르고 흘러 나에게도 중산층의 상징이며, 성공한 모습의 상징과도 같은 아파트 한 채가 생겼다. 내가 어려서 뛰놀던 동네의 재개발로 인하여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생겼고 나에게도 고향 같은 그곳의 아파트에서 전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아파트 한 채가 내 것이 되기까지 결혼 후 7년이 걸렸다.

그 기쁨, 세월이 흐른 후 현재에도 한 채인 아파트이지만 열심히 살아온 세월에 대한 훈장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을 포기한다. 그 이유는 아파트 관련 기사에서 늘 다뤄지듯이 현실에서 소유하기 어려워진 존재가 되었다. 본인 역시 어려운 과정과 긴 시간을 지난 후에야 갖게 된 아파트에서 이제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고 창밖으로 보이는 건너편의 아파트 창문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풍경이란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경치라고 한다. 일상에서 아파트의 풍경을 바라볼 때 마음에 따라서 우울하거나 즐겁거나, 또는 희망찬 마음이나

때로는 삶에 지쳐 피곤할 때 등등, 아파트의 풍경은 그때마다 달라진다.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파트의 풍경은 달라 보인다.

“시간은 항상 집을 나서는 오전 9시에서 10시쯤일 때
그 아침은 햇빛을 충분히 머금지 않은
아직도 여리고 풋풋한 청소년의 느낌이 느껴진다.
오후 눈이 부셔 얼굴을 찌푸리듯 실눈을 뜨며
바라보는 오후 3시쯤의 하늘은 햇빛을 충분히 머금고 있고,
해가 지는 오후의 노을은 불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저녁 장을 보며 들어서는 아파트 입구는
따스한 가족의 품속 같다.“

-작가노트, 2016.10

이렇듯 일상에서 바라보는 아파트풍경은 아침 점심 저녁때 등의 시간과 기쁘거나 슬프거나 노엽거나 피곤하거나 희망차거나 하는 자신의 감정과 사회적 이슈일 때 달라지는 등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모습을 띈다.

본 연구자의 작품에서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일상의 풍경을 분체를 사용하여 곱게 색으로 표현을 한다. 본 연구자는 작품 안에 나타나는 아파트를 분체로 곱게 채색하여 화면을 구성한다. 그것은 본 연구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재료이기 때문에 선호한다.

Ⅲ. 주관적 시선으로 해석한 주거공간

1) 욕망의 구현체인 아파트

현대사회에서 아파트가 갖는 의미는 재산이라는 재화와 가족들의 안식처라는 가정이라는 공간으로 볼 수 있는데 본문Ⅲ에서는 ‘욕망의 구현체’로 바라본 아파트와 ‘시간의 등가물’로 바라본 아파트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본인 작품의 시작은 소유하고 싶은 집에 대한 꿈으로부터 시작된다.

아침에 일어나 길을 걷다 문득 눈을 들어서 앞을 보면 아파트가 눈에 들어온다. 아파트 숲에 들어있는 느낌이다. 현재 내가 살아가는 서울의 주거공간을 아파트가 거의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런 아파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본인 소유의 아파트 한 채를 갖기까지는 결코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연일 신문에는 아파트에 관련된 기사들이 실리고 그 아파트 1평당의 가격이 4,000만 원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존재한다고 하며,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본인의 힘으로 아파트를 갖기까지 평균 8년에서 1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도 실린다.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가족이 거주할 아파트를 구매한다. 이렇듯 본인도 대한민국의 평균치의 삶을 살았다.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싶은 것이 과연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욕망의 구현체인 아파트를 나는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다. 욕망에 대한 라캉(Jacques Lacan, 1901.4.13.~1981.9.9.)¹¹⁾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욕망이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점이다. 즉, 욕망은 개인의 내밀한 사안이

11) 자크 라캉(Jacques Lacan, 1901.4.13.~1981.9.9.)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분석하는 이론을 정립하여 ‘프로이드의 계승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아니라 다른 주체들의 욕망을 자각하고 그들과 변증법적 관계를 맺으면서 구성되는 것이다. 욕망의 사전적인 의미는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한다고 쓰여 있다.

지금 평범한 사람들이 욕망하는 아파트에 대한 2015년 인구 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전체주택 유형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9.9%에 달한다고 한다.”¹²⁾ 10명 중 6명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본인은 현재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는데 이곳에서도 많은 사람이 재개발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며, 관련 기사에 기뻐하거나 좌절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부동산에 대한 욕망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자의 작품은 ‘욕망의 구현체’인 아파트에 관한 이야기와 ‘유보한 꿈’ 또는 ‘잃어버린 꿈’으로 바라본 아파트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아파트에 사는 것이 좀 사는 것, 강남의 아파트는 부유함을 의미한다는 등의 공식은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양산되었다. 사람들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를 드러내며 사회적 인정을 갈망하고 있다. 이렇게 갈망하게 되는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일정량 현금이 필요하다.

“시간이 돈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시간은 돈이다.’라는 메타포는 가분성에 기초한 시간 개념을 스스로 강화한다. 그것은 메타포이자 현실이기도 하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므로 돈은 일(노동)이며, 그 결과 시간은 노동이라는 또 다른 메타포가 성립한다.”¹³⁾ “화폐를 노동시간의 재현으로 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은유적이면서도 자본주의적 삶의 현실을 설명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¹⁴⁾ 욕망의 구현을 위해 본인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월급을 받았다. 여기서 노동력은 시간과 관계가 되며 최저임금 또는 일정량의 현

12)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보도자료/담당:송다영/통계청

13) 류동민. 『시간은 어떻게 돈이 되었는가?』. 휴머니스트. 2018. p130.

14) 류동민. 『시간은 어떻게 돈이 되었는가?』. 휴머니스트. 2018. p71.

금을 받게 되는데 마르크스(Marx, Karl, 1818.5.5.~1883.3) 경제학¹⁵⁾에서 쓰이는 용어인 등가교환이란 이때의 가치는 사회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상품 생산에 요(要)하는 사회적 노동시간이며 같은 사회적 노동의 생산물만이 등가물로서 교환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에 우리는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 자의적인 포기는 자신의 시간인 셈이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한다는 개념을 본인의 작품에서는 화면 전체를 가로지르는 무수한 가로 선으로 표현하였다. 그 가로 선은 본 연구자의 욕망이었던 아파트(물질)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시간을 포기하고 재화를 얻기 위한 노동력으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본인이 포기한 것은 꿈이다. 시간은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본 연구자의 작품 속의 가로선들은 흘러가고 버려진 시간과 기억에 대한 표현이다.

2) 시간과 잊힌 일상들

영화 「패터슨」¹⁶⁾에서 주인공인 패터슨은 버스운전사이다. 그는 하루하루의 반복되는 일상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닌, 하루가 끝난 오후에 그 날의 일상을 자신의 비밀 노트에 소중히 기록한다. 그 기록들은 아름다운 시가 되어서 지루하고 의미가 없을지도 모를 하루하루가 아름다운 시가 되어간다는 내용의 영화이다. 이 영화를 보면서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본인도 주어진 일상을 열심히 살아왔다. 경쟁에 뒤지지 않으려고 무수한 시간과 싸움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15) 마르크스 경제학의 체계는 상품-화폐-자본으로 이어지는 자본론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는다.

16) 영화 '패터슨': 2017년 작, 감독: 짐 자무쉬, 주연: 패터슨 역 아담 드라이버.

흐르고 문득 뒤돌아본다. 시간이 흐르고 지금 젊은 날의 꿈과 맞바뀌진 나의 현재를 본다.

본 연구자의 작품 속에서의 화면을 가로지르는 흰 가로선, 칼로 화면을 깊게 파낸 가로선【작품 6】, 글로 길게 써 내려간 띠의 형태인 가로선【작품 3】, 화면과 같은 색의 여백으로 남겨진 가로선, 거울로 표현된 가로 선【작품 1】,【작품10】 들은 앞에서 언급된 시간의 등가물인 아파트를 얻기 위해 포기했던 잃어버린 시간, 기억. 일상에 대한 표현이다.

”그렇게 달려오면서……,

분명 크거나 작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오면서,

나는 작은 일상에서의 평범한 행복에 관한 기억을 많이 잃었다.

그리고 젊은 날의 꿈과도 멀어져 있었다.

그렇게 세월이 저당 잡힌 꿈과 지금의 안정된 생활이 교차하면서

나의 꿈을 아파트와 맞바꾼 것은 아닌가 하는

억지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억지스러울지도 모르는 억지를 부려본다.

내 꿈과 맞바뀌진 아파트 한 채라고.” -작가 노트 2016.3.17.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화된 시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돈(화폐)이다. 돈은 그 자체로 시간이며 일(노동)이 된다.”¹⁷⁾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에 몰두하느라 일상의 많은 부분을 놓친 것에 관한 내용을 본인의 작품에 표현한다.

본 연구자의 작품 속에는 직접적인 이미지로서의 시간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곧 시간이다. 과정 속에는 시간이 녹아 흐른다.

17) 류동민. 『시간은 어떻게 돈이 되었는가?』. 휴머니스트. 2018. p214.

작업하는 과정에서의 무수한 가는 선의 붓질은 쉽게 화면을 채울 수 없고 가는 붓 선이 지나가야만 면이 메워지는데, 일상의 삶들이 모여서 시간이 흐르고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본인의 작품을 연구하며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거울을 사용한 작업은 거울 위에 욕망의 구현체로 바라본 아파트를 그렸고, 가는 선 사이로 작품을 들여다보는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추어진다. 아파트를 갖게 되기까지 잃어버린 다른 자아를 들여다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된 아파트는 일루전(an illusion)을 갖는다. 구름을 드리운 허공 속의 주거공간은 마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거울 속에서 일렁이는 본인의 모습과 함께 화면을 채우는 아파트는 물그림자처럼 존재하지 않는 허상처럼 느껴진다.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을 소유하지 못 했던 본인의 마음처럼 너무나 비현실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IV. 작품 분석

1) 반복적인 붓질의 의미

이합지 또는 삼합지 위에 분채를 곱게 갈아서 아교와 잘 배합을 한 후 여러 번 얇게 칠하는 것이 아닌 두텁게 여러 번 레이어를 쌓아 올린다. 칠하고 또 덧칠해진 두터운 분채로 표현하는데 이 행위는 가는 붓질로 넓은 화면을 메워 나가게 된다. 분채를 곱게 갈고 아교 물에 적정하게 배합해서 잘 섞어 준 후에 붓으로 가는 가로 선 【작품 9】으로 계속 덧칠해 나가는 기법을 사용한다.

이 행위는 이미 본인의 작업 중 2009년 이전부터 사용했으며 2009년도 유토피아에 관련된 작품에서는 더 명확한 이유로 사용되었다. 가로 선을 긋는 행위는 외부와의 담을 쌓는 행위이고 그 안에서 나만의 유토피아, 여기에서의 유토피아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본인만의 도피처로서의 역할을 하는 작은 의미의 유토피아인 것이다.

가는 붓질로 화면을 채워 나가면서 외부와의 벽을 쌓는 역할은 개인적인 현실에서의 도피도 의미하며 그것은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뉴스나 SNS에서 끊임없이 터지는 사건, 사고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거나 도와줄 수 없는 가슴 아픈 사건들을 접하기 싫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이미 현실에서도 자기 자신을 본인이 살고 싶은 모습으로 살 수 없게 가로막힌 현실에서의 상황들로부터 타인의 세계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던 때에 본인은 이런 반복적 붓질로 자신을 치유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반복적인 동작은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으로 집중하게 되고 그런 반복행위로 마음을 비우고 본인만의 유토피아에 안착하는 마음의 평정을 얻는다.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1911.12.25.~2010.5.31.)¹⁸⁾는 “예술은 정신적 외상의 경험”¹⁹⁾이라고 말했다. 부르주아는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 행위인 바느질을 했다 “바느질, 뜨개질 같은 신체 동작의 반복적 방법은 이를 통해 안정감을 가지고 작품을 완성하는 데서 오는 성취감과 욕구불만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

본 연구자의 작품에서는 이런 반복적인 가로 선의 붓질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본인을 치유하는 효과를 주었다. 이런 반복적인 붓질은 본 연구자의 작품에서 세 가지의 의미를 내포 한다

첫 번째는 작품에서 의미하는 지나온 시간을 중복적으로 레이어(layer)를 쌓아감으로써 시간의 누적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루이즈 부르주아의 경우처럼 또는 심리연구자들의 연구내용처럼 상처를 치유하는 자아 치유의 개념으로 본다.

세 번째는 본인의 작품에서 사용되는 가는 붓 터치와 분체를 두텁게 중첩하여 칠하는 방식은 레이어를 쌓아가는 무의식에 가까운 반복적인 붓질의 행위는 과정미술(Process Art)²⁰⁾에서의 한 부분이 일치한다고 본다. “과정미술은 시간과 과정에 관한 개념을 받아들여 자연 속에서 시간이 갖는 의미와 작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까지도 작품의 한 부분으로 포함할 수 있었

18)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1911.12.25.~2010.5.31.) 프랑스 태생의 미국 추상표현주의 조각가. 현대 미술의 대모로서 70세가 넘는 나이에 국제적 명성을 얻었고 20세기 가장 주목받은 조각가 중 한 명이 되었다

19) (국립현대미술관 편, 『루이즈 부르주아: 기억의 공간』, 삶과 꿈 2000, p49), (김진숙, 『예술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중앙적성출판사,1993,p153).이상의 두 참고문헌은 반복적 미술 행위를 통한 자아 치유/ 홍대산업미술대학원 /박소연 / 2011)의 논문에서 참고했다.

20) 과정미술 (Process Art) 프로세스 아트는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의 기간에 걸쳐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미술운동으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그 작품의 주제로 삼는 미술이다. 그러므로 프로세스 아트는 결과보다 방법과 과정을 중시하며 미니멀리즘의 형식주의와 절대적이고 구체적인 명료성에 대한 반발로 발생하게 되었다. 프로세스 아트의 개념은 이미 1950년대부터 제시되어왔는데, 잭슨 폴록의 거대한 캔버스가 그림이기 보다는 환경의 느낌을 준다는 엘렌카프로의 말에서 시작되었다.

다”.²¹⁾ 본인의 작품에서 화면 전체를 제작하는 과정의 밑 작업과 반복적 붓질 행위에 있어서 과정미술의 한 부분과 일치한다고 본다.

2) 가로선과 거울의 상징적 표현

본인의 작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화면 전체를 가로지르는 가늘고 긴 가로 선으로 본문에서 서술한 등가물²²⁾을 얻기 위해 지급되는 일정량의 현금을 얻기 위해 노동력으로 대체 된 시간을 뜻한다. 잃어버린 시간과 되찾을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을 표현한다.

그렇다면 왜 가로 선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초기작품에서 【작품11】 찾을 수 있는데 노란색으로 표현된 가로 선은 ‘금지’를 의미한다.

작가 강홍구²³⁾는 가족에 대한 장남의 주어진 책임이라는 짐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자신을 빗댄 작품으로 ‘도망자’시리즈를 제작하였다.

그와는 반대로 본 연구자는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여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이런 과정은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닌 가족이 원하는 길로 가야 했고 그럴 때마다 ‘금지’라는 노란 선이 그어졌다.

자세히 말하면 어린 시절에는 그림쟁이는 밥 빌어먹는다면서 물감과 화구들을 갖다 버리셨던 아버지의 엄격하심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미대 진학이 아닌 공부를 하고 직장생활을 했다.

이런 식의 ‘금지’의 느낌은 마치 도로 위에 그려진 중앙선의 노란 선처럼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침범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날 것 같은 마음이었다. 그래서

21) 전은희. 『벽에 대한 시간과 공간에 관한 표현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22) 등가물-값이나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말한다

23) 강홍구(1956년 출생). 사진작가. 서양화가. 『아키토피아의 실험』. 『디카를 들고 어스렁』 등의 저서가 있다.

노란색의 가로 선은 ‘금지’를 뜻한다.

최근의 흰 여백의 가로 선은 ‘잃어버린 일상’에 관한 표현이다. 전체적인 가로 선은 달리는 차 안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묘사한 듯 보이는데 이 경우의 흰 가로선은 시간으로 해석되어도 좋다. 가끔은 현재의 본인의 작품에서 가로 선이 의미하는 많은 내용은 작가에게 듣지 않았을 때 관객의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이런 호기심을 유발하는 상황은 영화의 한 기법인 맥거핀²⁴⁾ 효과처럼 사용되어도 좋다.

최근 작품에서 거울을 사용하여 가로선을 표현한 작품은, 거울의 사전적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체의 모양을 비추는 물건을 말하며, 다른 뜻은 어떤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보여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내면적인 의미는 이 상(작가 김해경. 1910.8.20~1937.4.17.)의 거울이라는 시에서 자아의 이중성을 노래하였듯, 본 연구자는 그 거울을 사용하여 나타나게 될 작품의 자아를 비추는 효과에 대해서 언급한다.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의 역사학에선 거울이 역사를 비유하는 말이기도 하다. 과거를 뒤돌아보고 이를 통해서 현재의 교훈을 찾아내는 도구로써 역사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본 연구자의 작품에서 거울을 사용하는 것은 과거를 뒤돌아보며 현재의 자신에게 교훈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본 연구자의 작품에서의 거울의 사용은 과거를 뒤돌아보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본인은 다분히 경제적 측면에서 직장을 다녀야만 했을 때 직장을 다니는 이 시간에 작품을 만들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매일 했었다. 그만큼 본인에게는 작업의 시간이 절실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본인은 직장을

24) 맥거핀 효과 (MacGuffin effect) 영화에서 중요한 것처럼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줄거리와 전혀 상관없이 관객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극적 장치 혹은 속임수를 말한다.

다녀야만 했다.

시각적 측면에서 거울의 반짝임은 단순한 호기심을 불러온다. 맥거핀 효과처럼 지속적인 의문과 호기심을 불러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호기심에서 거울을 들여다보게 될 때 관객은 거울에 비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는 자신의 모습으로 시선을 모았다가 다시 관심을 돌리면 자신의 모습 위로 건물들을 마주한다. 여기에서의 건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이다. 본 연구자의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은 작품 속에서 늘 보는 아파트의 건물과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의 의도는 거울에 비춘 자신과 자신의 내면의 만남에 있다. 시간을 뒤돌아보는 지점으로의 역할이다.

가늘게 일정한 간격의 화면을 가로지르는 거울로 표현한 가로 선은 시각적인 반짝임을 주어서 유리 창문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거나, 물 위에 비추어지는 아파트의 그림자와 은빛 파도처럼 반짝이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다. 가늘게 보이는 거울에 본인의 모습이 어른거리면서 화면 가득 그려진 아파트와 함께 관람자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물그림자의 모습인 듯, 일루전(an illusion)을 갖게 되는 표현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

다른 면에서 작품을 표현한 내용을 살펴보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화면에 그려진 아파트는 시간과 맞바꾼 재화, 즉 시간의 등가물을 뜻한다.



【작품 1】 류경희, 〈도시의 시간Ⅱ〉, 162cm×130cm, 거울에 혼합재료, 2017



【작품 2】 류경희, 〈흐름〉, 116cm×91cm, 호분지에 분채, 2016

【작품 1】 류경희, 〈도시의 시간Ⅱ〉

162cm×130cm, 거울에 혼합재료, 2017

현재 대한민국의 주거형태 중에서 가장 선호되는 아파트를 주제로 화면 가득 분채로 곱게 채색하였다. 풍경을 생략하여 아파트를 강조하였다.

이 작품은 2017년에 제작하였으며 재료로 거울을 사용하였는데 거울이란 과거를 뒤돌아보고 이를 통해 현재의 모습을 되새겨보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

이 작품에서도 거울의 역할은 시간의 등가물인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되새겨 보는 의미가 큰 작품이다.

구도에서는 원경을 사용하였고 바탕을 하얀 여백으로 남겨 놓아서 전통의 한국화의 여백을 연상할 수 있다.

【작품 2】 류경희, 〈흐름〉

116cm×91cm, 호분지에 분채, 2016

이 작품에서 강조되는 것은 화면 가득 가로로 그어진 하얀 여백의 가로 선이다. 본 작품에서의 하얀 가로 선은 마치 속도가 빠른 버스나 기차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풍경처럼 보인다.

본 작품에서 지나간 어린 시절의 추억과 희끗 희끗 지워진 기억의 한 부분을 표현하였다. 시간과 기억이라는 그리고 낡은 텔레비전의 브라운관에서처럼 지직 지지직 거리는 지워진 화면의 부분처럼 잊혀진 기억을 표현하였다.



【작품 3】 류경희, 〈도시의 시간 I〉, 130cm×161cm, 호분지.분채.은분, 2016

【작품 3】 류경희, 〈도시의 시간 I〉

130cm×161cm, 호분지.분채.은분, 2016

『도시의 시간 I』은 신기루처럼 줌처럼 손에 잡을 수 없는 것은 물론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일루전을 보인다.

바다 또는 모래사막 위의 섬처럼 떠 있는 아름다운 아파트 군락은 서울의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하여 서울의 아파트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주제로 작업을 하는 것은 장소에 대한 문화적 정서적 공감대 때문이다. 즉 장소성은 의미가 부여된 공간에 대한 인간의 체험에서 얻어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대한민국의 아파트를 주제로 작품을 표현한다.

욕망의 구현체로 바라본 다른 작품과 같은 주제이며, 채색으로 화면을 가득 메웠다.

본 작품은 ‘열심히 살아오면서 아직도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갖지 못한 마음’을 담았다.

현실에서 온전히 본인의 힘으로 집을 한 채 갖는다는 것은 몇 년이라는 노동의 시간을 거쳐야 하므로 쉽지 않은 과정 때문에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신기루처럼 멀리 아파트의 섬이 바다 위에 떠 있고 또 구름 위에 떠 있어서 줌처럼 다가갈 수 없는 비현실적인 풍경이다.

화면의 하얀 가로 선은 호분으로 작은 글씨로 내 어린 시절의 집에 관한 이야기와 현재의 아파트에 관한 기사를 글로 써서 가로선으로 표현하였다. 본 작품의 제목에서도 알 수 듯이 시간의 등가물로서의 아파트에 관한 내용이 보이기 시작한다.



【작품 4】 류경희, 〈흐름 II〉 , 116cm × 96cm, 호분지에 분채, 2016



【작품 5】 류경희, 〈도시의 시간 III〉, 72cm × 53cm, 거울에 분채, 2017

【작품 4】 류경희, 〈흐름 II〉

116cm × 96cm, 호분지에 분채, 2016

멀리 바라만 보이는 아파트에 대한 환상이 아름다운 색감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앞산이 보이고 또 뒷산 너머의 먼 곳에 있는 비현실적인 느낌의 아파트가 예쁜 색으로 표현 되었는데, 아름답지만 멀게 느껴지는 현실감 없는 집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대출을 받고 열심히 일해서 아껴 아껴 살아왔어도 아직도 멀리만 있는 집에 대한 아련함. 그래서 콘크리트의 아파트인데도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풍경이다.

【작품 5】 류경희, 〈도시의 시간 III〉

72cm × 53cm, 거울에 분채, 2017

요즘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아파트 한 채를 갖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개인의 삶을 포기하고, 꿈을 미루고,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왔는가?

결혼 후 7년 만에 갖게 된 본인 소유의 아파트다. 아침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고 오후에 집으로 돌아올 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집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며 항상 마주치는 현실 속의 아파트를 표현했다.



【작품 6】 류경희, 〈흐르다〉, 116cm × 91cm, 호분지에 혼합재료, 2016

【작품 6】 류경희, 〈흐르다〉

116cm × 91cm, 호분지에 혼합재료, 2016

오래된 아파트와 색 바랜 듯한 나무의 모습, 스치듯 지나치는 나무와 칼로 파낸 거친 모습은 지난 세월을 삶을 위해 앞만 보면서 달려오는 과정에서 소중했던 일상의 기억을 잃어 버리고 아직도 바쁜 듯 빠르게 달려가는 본인의 내면을 표현하였다.

수묵산수를 그렸던 본인은 아파트라는 주제로 바뀐 현재에도 풍경에 대한 묘사를 여전히 하고 있다. 여백을 남기는 습관도 남아있다.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라는 공간과 그 주변부의 아파트를 주제로 그리고 있다. 다른 나라의 외형적으로 아름답거나 특이한 아파트가 아닌 늘 주변에서 보는 아파트를 그리는 것은 고려시대에 시작된 실재하는 산수를 표현한 그림을 의미하는 실경산수와 조선 후기의 진경산수와 공동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구도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전통산수화에서 사용되던 근경, 중경, 원경의 구도가 나타난다. 근경에서 나타난 아파트는 이제는 자신의 소유가 되어 아파트를, 이제는 가까워진 현재의 본인의 모습이기도 한 내용이 들어간다. 표현은 본인의 마을에서의 친근감도 포함된다. 원경에서는 잡을 수 없는 신기루 같은 느낌을 표현하였다.



【작품 7】 류경희, 〈지금…바라보다〉, 116.8cm × 72cm, 삼합지 .분채. 종이끈,
2016



【작품 8】 류경희, 〈흐름...얻는 것과 지워진 일상〉, 112cm×162.2cm, 삼합지에 분채, 2016.

【작품 7】 류경희, 〈지금…바라보다.〉

116.8cm × 72cm, 삼합지 .분채. 종이끈, 2016

콘크리트 숲이라 불리는 많은 아파트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부의 상징이거나 욕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멀리 바라다 보이는 아파트의 숲은 콘크리트로 덮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을 뽐어내는 듯한 착각을 일게 한다. 중산층의 상징이며 부의 상징이며, 부모의 도움 없이는 평범한 직장인이 아파트 한 채를 구입 하려면 8년에서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일정량의 현금이 필요하다. 그만큼 가깝게 존재하지만 신기루처럼, 타인처럼 멀게만 느껴진다.

【작품 8】 류경희, 〈흐름…얻는 것과 지워진 일상.〉

112cm×162.2cm, 삼합지에 분채, 2016.

작품에서는 엘렌카프로의 말에서 시작 된 과정미술(Process Art)의 한 부분으로 보이는 화면 전체를 메우는 무수한 가는 붓 터치가 보인다.

본인의 다른 작품에서도 일관 되게 표현되어지는 특징 중의 하나인 가는 선으로 그리는 가로 선의 붓 터치는 분채를 두텁게 중첩해서 겹(layer)으로 쌓아가는 부분에서 시간의 개념과 자아 치유의 개념에서 볼 때 중첩하며 단순 반복 되는 행위도 작품의 한 부분이며 이 부분을 과정미술로 해석 할 수 있다.

본 작품에서도 역시 시간과 잃어버린 일상에 대한 기록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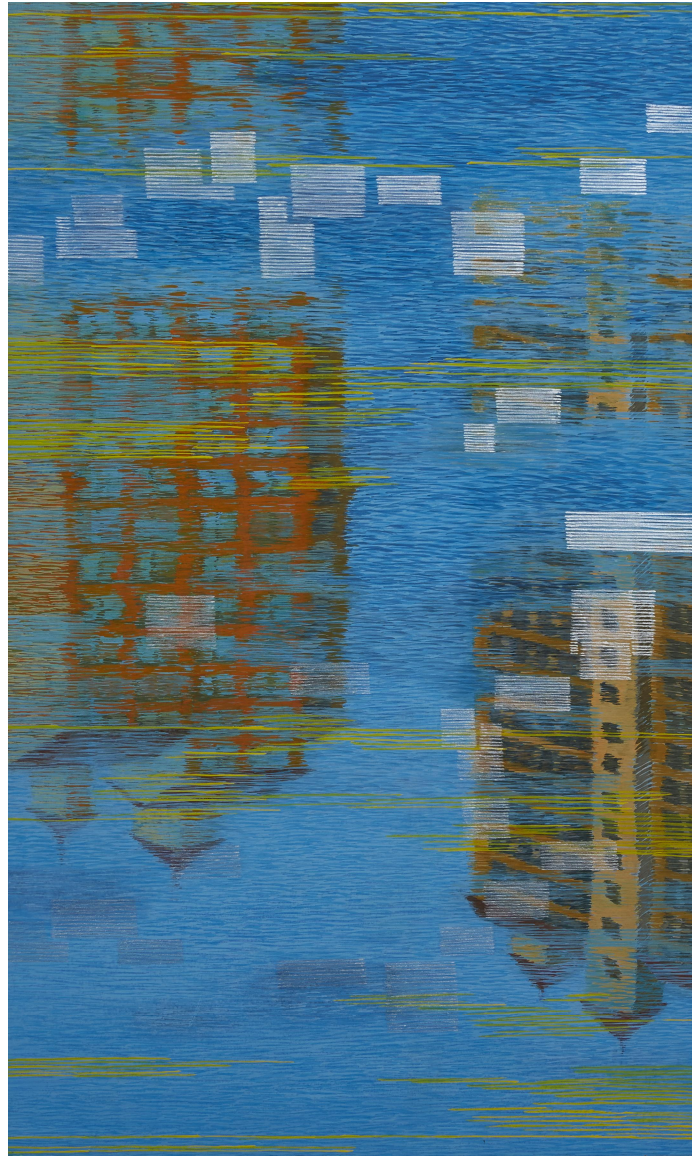


【작품 9】 류경희, 〈상상을 뜨개질하다〉, 53cm × 45cm, 호분지에 분채, 2016.

무수한 가는 선의 붓질은 쉽게 화면을 채울 수 없고 가는 붓 선이 지나가면서 흘러가는 시간만큼 면이 메워진다. 일상의 삶들이 모여서 시간이 흐르고 오늘의 내가 있게 된 장소, 같은 맥락에서 작업을 한다. 본 작품에서는 가로 선의 중첩된 색칠이 잘 보인다. 루이즈 부르주아 (Louise Bourgeois, 1911. 12. 25~2010. 5. 31)는 “예술은 정신적 외상의 경험”이라고 말했다. 부르주아는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인 바느질을 했다. 『예술의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체』, 김진숙의 글 중에서는 “바느질, 뜨개질 같은 신체동작의 반복적 방법은 이를 통해 안정감을 갖고 작품을 완성하는 데서 오는 성취감과 욕구불만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 고 했듯이 본인의 작업 밑바닥의 기본에는 무수한 가는 붓 선의 반복이 겹쳐진다.



【작품10】 류경희, 〈시간…현재…〉, 40호, 거울에 혼합재료, 2017



【작품11】 류경희, 〈 꿈꾸는 어떤 것 〉 , 100cm×80cm, 호분지에 분채, 2016

【작품10】 류경희, 〈시간…현재…〉

40호, 거울에 혼합재료, 2017

이제는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창문을 통해서 바라본 풍경. 역시 주제는 현재 대한민국의 중산층 또는 부의 상징이기도 하며, 욕망의 대상인 아파트를 작품화하였다. 거울은 자기를 되돌아보는 역할로 사용되었다.

【작품11】 류경희, 〈꿈꾸는 어떤 것.〉

100cm×80cm, 호분지에 분채, 2016

어린 시절에는 그림쟁이는 밥 빌어먹는다는 이유로 물감과 화구들을 갖다 버리셨던 아버지의 엄한 모습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공부하고 직장생활을 했다. 이런 식의 ‘금지’의 느낌은 마치 도로 위에 그려진 중앙선의 노란 선처럼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침범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날 것 같은 마음이었다. 노란색의 가로 선은 ‘금지’를 뜻한다. 이 노란 가로 선은 ‘금지’의 선이었고 작품들을 계속 제작하는 동안 노란 선은 여러 가지의 작품표현을 위한 실험으로 여백의 가로 선이나 다른 선으로 표현이 되었고 그 선의 뜻도 확장되었다.



【작품12】 류경희, 〈555,840 seconds〉, 92cm×145.5cm, 삼합지에 분채, 2017

【작품12】 류경희, 〈555,840 seconds〉

92cm×145.5cm, 삼합지에 분채, 2017

여행은 하는 것은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의 꿈일 것이다. 이런 여행을 하는데 사용된 돈을 시간 개념으로 보았고, 제목을 정했다. 이 시점부터 등가교환(Exchange of equivalent)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등가교환이란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나오는 이론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전시 중이던 2017년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이 1시간당 6,470원이었고 이런 계산으로 여행 시 사용된 돈을 시간으로 계산한 첫 작품이다. 이전까지의 작품에서는 본 연구자 개인의 잃어버린 꿈과 맞바꾼 욕망의 구현체인 아파트에 대한 다분히 개인적인 내용이 기본이 되었던 작품이었다면, 본 작품에서는 ‘시간=노동력 제공=재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서 현재 최저임금과 노동력, 그리고 소비에 관한 작품으로 의미의 확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앞으로의 작업은 본 작품과 같은 맥락의 주제를 연구하고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현재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기도 하며 아파트가 중산층이나 상류층의 상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욕망의 구현’으로써의 아파트에 관한 이야기와 ‘유보된 꿈’ 또는 ‘잃어버린 시간과 일상’에 대한 본 연구자의 작품에서 표현되는 내용연구와 작품분석을 서술했다.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공간이 현대사회에서는 아파트가 가장 선호 되는데 그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욕망의 구현체이면서 시간의 등가물로서의 상징성, 그리고 아파트의 장소성을 만들어내는 자연환경이나 인공적인 환경에서 나오는 특성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그들로부터 형성된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내용에 대해 고찰하여 논하였다. 본 연구자의 경우에서도 한국인의 아파트를 바라보는 장소에 대한 문화적, 정서적 공감대가 같다.

아파트라는 집단 거주형태인 콘크리트 숲으로 비유되는 비개성적인 공간의 형태이지만 작품 속에서는 본 연구자의 감정과 느낌이 표현되었음을 상기하며, 일상에서 바라보는 아파트풍경은 아침 점심 저녁때 등의 ‘시간’과 기쁘거나 슬프거나 노엽거나 피곤하거나 희망차거나 하는 자신의 ‘감정’과 사회적 이슈 일 때 달라지는 등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모습을 띤다.

본 연구자의 작품에서는 시간, 감정,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일상의 풍경을 분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본 연구자의 작품 의도에 대하여 두 가지로 서술했다. 첫 번째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아파트를 얻기 위해 저당 잡힌 본인의 꿈과 시간을 연결하여 작품을 분석하였고, 두 번째는 시간의 등가물에 관한 작품 해석을 하였는데

여기에 적용한 등가교환이란 마르크스 경제학에 나오는 용어이다. 쉽게 표현한다면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잃게 되며’, 그것은 스스로 의지에 의한 포기일 때가 많다.

위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작품은 유보된 꿈과 맞바꾼 아파트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일상의 아름다웠거나 소중한 기억들을 잃어버린 것에 관한 내용을 작업하며, 2016년부터 2017년에 제작하여 발표한 석사학위 청구전을 중심으로 한 본인의 작품에 대한 작품분석을 살펴보았다.

본연구자는 앞으로의 작품 활동에 대한 마음가짐으로 “예술가는 자기 마음속의 예술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찾기 위해 일생을 매달린다. 예술가가 자신만의 고유한 창작 수단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예술적 성취의 관건이기도 하다.”²⁵⁾이제 본인은 지금까지 제작해온 작품을 기반으로 더욱 분발하고 연구하여 고유한 창작 수단을 찾고, 자아 성찰이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자의 최근 작품에서 사용하는 거울의 이중적 해석을 통한 내용을 더욱 확장하여 새로운 조형예술의 표현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25) 가오성젠. 『창작에 대하여』, 돌베개. 2013. p145.

참 고 문 헌

단행본

- 강홍구, 『디카를 들고 어슬렁』, 마로니에북스, 2006.
- 류동민, 『시간은 어떻게 돈이 되는가』, 휴머니스트출판그룹, 2018.
- 가오싱젠, 『창작에 대하여 論創作』, 돌베개, 2013.
- 아서 단토, 『예술의 종말 이후』, 미술문화, 2004.
- 오니시 히로시, 『마르크스 경제학』, 박종철 출판사, 2013.
- 자크 라캉, 『욕망 이론』, 문예출판사, 1994.
- 켈리 그로비에, 『세계100대 작품으로 만나는 현대미술특강- 100 Works of Art That will define our age』, 생각의길, 2017.

학위논문·학술지

- 김창모, 『장소성 해석을 중심으로 한 동승동 주상복합계획안』,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3.
- 박소연, 『반복적 미술 행위를 통한 자아치유』,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2011.
- 전은희, 『벽에 대한 시간과 공간에 관한 표현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10.
- 최병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소성의 상실과 복원』, 학술지, 도시연구, 한국도시연구소, 2002.

ABSTRACT

A study on the symbolism of residential space

-Centering around My Work-

Ryu, Kyeong hui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You are considered successful if you have your own house (or apartments) in Seoul, the Capital of South Korea, while you are working as an average job. A beginning of own works started from a desire to have my own house which is necessary to have in ordinary life.

The reason why I have chosen Apartments for the subject of my works is that I have been drawing landscapes so far, and in the process of making landscapes into works, I was agonized about placeness of landscape.

Placeness is the materialized environment through human experience. And in this process, I chose the ordinary apartments in South Korea for the subject in the meaning of cultural identity which is formed by people gather in the same place.

How many people repeat commuting to work in the concrete jungle,

and how many hours they give up their lives and suppress their dreams for commuting to work as a component of the city to get an apartment currently in Seoul, South Korea? The Apartment forest, which is expressed in my works, is about a life that has mortgaged personal time. My works contain the story about time, and mortgaged my own dream.

My story about time is expressed by repeated strokes of a brush and horizontal lines in the production process. The time that is accumulated by repeating horizontal lines in several layers on a traditional Korean paper makes me to forget a tough life, also it is paradoxically the mortgaged time by apartments, which is a materialization of desire.

This thesis describes my mortgaged dream with consideration of symbolism and placeness about my works. People have to work for earn money in their lives, therefore money is labor, in consequence, I produce a formation of theory, which is 'time is labor', on my works.

Existing works are based on a personal story about Apartments which is my desire changes with my dream. On the other hand, recent works represent 'Time=Labor, supply=money'. I study on the works that express Apartment which is my equivalent of time.